



대취타

합주



학습 목표 대취타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.

악곡 해설

임금님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때 연주되던 '대취타'는 '크게 불고 친다'라는 뜻으로, '무령지곡'이라고도 한다. 느리고 단순하면서도 위풍당당한 선율이 특징이며, 집사의 신호에 따라 관악기와 타악기로 연주한다. 현재는 국가 의식이나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.

정미영 채보

林仲黃
명
집사

그 음일하 아 대취타아 하랍신다 이

장~ 악대

김해숙 채보

태평소

용고
자바라, 징

나팔
나각

1 '대취타'의 연주 순서를 이해하고 감상해 보자.

- 집사의 "명금일하 대취타 하랍신다" 라는 외침에 악사들이 "예이" 라고 답하며 악곡이 시작되고, 음악이 끝날 때는 "허라금" 이라고 외치면서 끝난다.



2 '대취타'에 사용된 악기 편성을 알아보자.

관악기



나팔



태평소



나각

타악기



징



자바라



용고

아하!

집사 | 취타대를 이끄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며, 등채를 들고 취타대를 총괄한다.

등채 | 조선시대 무관이 들었던 채찍이자 지휘봉이다.

명금일하 대취타 | '징을 한번 울려 대취타를 시작하라'라는 뜻으로 대취타 연주를 시작할 때 호령하듯 하는 말이다.

허라금 | '대취타' 연주가 끝날 때 하는 말로 시끄러운 소리를 멈추라는 뜻이다.

3 '대취타'와 '취타'의 음악적 특징을 구분하며 비교 감상해 보자.

더 알아보기

'취타'는 '대취타'의 태평소 가락을 장 2도 올린 후 관현 합주로 편곡한 곡이며, '만파정식지곡'으로도 불린다. '대취타'의 12박 장단을 사용하며, 거문고, 가야금, 해금, 아쟁, 향피리, 대금, 좌고, 장구, 박 등의 악기로 편성된다.



정리와 평가 ... 대취타의 연주 순서를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는가?